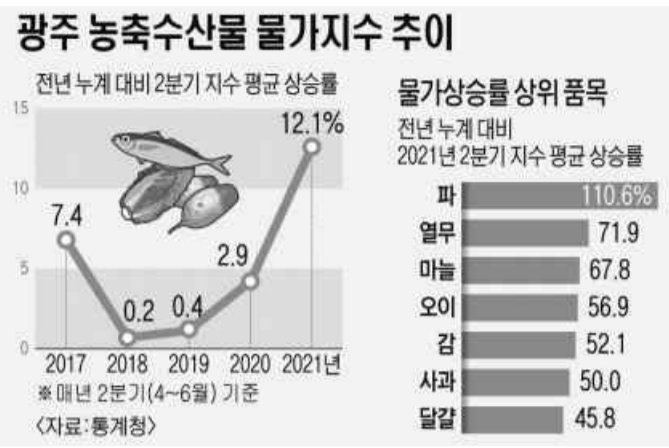


외식 두렵고 장보기 무서워...광주 농축수산물 물가 고공행진

올 2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광주 12.1% 상승...17년 만에 최고
광주 48개·전남 51개 상승...파 값 광주 110.6%·전남 100.3% ↑
달걀 값 광주 45.8%·전남 32.6% ↑ ...계란 수입에도 상승세 지속

올해 2분기 광주 농축수산물 물가가 10% 넘게 오르며 같은 분기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초 나흘 간 쏟아진 폭탄성 장맛비에 전남 농축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하반기 먹거리 수급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지역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광주 12.1%·전남 9.9% 상승했다.
2분기 기준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광주의 경우 2004년(12.1%)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

고, 전남은 2009년(10.7%)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이다.
올 2분기 전국 평균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1.9%로, 광주는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탓에 '두 자릿수'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광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8월 10.3% 오른 이후 같은 해 11월(7.9%)을 제외하고 줄곧 10%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전남지역도 지난 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10.1% 상승했다.
올 2분기 통계청이 가격을 조사한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가운데 광주 48개·전남 51개가 지난해 보다 가격이 올랐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보인 품목은 광주 29개·전남 22개로 나타났다.
올 들어 농축수산물 값 급등은 '금파' '금사과' '금달걀'로 압축된다.

지난 2분기 파 가격은 광주 110.6%·전남 100.3% 올랐다. 파 값이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건 지난 2006년 2분기(광주 160.9%·전남 126.6%) 이후 15년 만이다.
파는 연초 한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가격이 급락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상반기 '파테크'(파가격이 비싸서 집에서 직접 재배해 먹는 것)'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가격이 튀어 올랐다.
인기 과일인 사과(광주 50.0%·전남 63.0%)와 배(광주 38.0%·전남 35.8%), 감(광주 52.1%·전남 13.7%), 포도(광주 30.5%·전남 33.4%) 가격도 지난 2분기 크게 상승했다.
오이(광주 56.9%·전남 39.4%)와 풋고추(광주 33.6%·전남 13.1%), 고춧가루(광주 24.2%·전남

47.6%), 미나리(광주 24.0%·전남 11.2%), 시금치(광주 16.7%·전남 11.3%), 호박(광주 18.2%·전남 28.4%) 등 주요 채소 값도 크게 올랐다.
2분기 달걀 값은 광주 45.8%·전남 32.6%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17년 2분기(광주 69.1%·전남 51.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하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처럼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뚝 떨어진 것은 각종 가격 상승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이 이어졌고, SI 이후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드는 등 계란 생산 기반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9일 "계속된 장마로 출하량이 감소한 반면 무더위, 초복 등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추와 수박 등 품목 가격의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 영광축협, 영광영광군지부, 나농축산운동본부와 지난 9일 영광축협 청보리한우프라자에서 '복날맞이 사랑의삼계탕정나눔행사'를 열고 300여 가구에 삼계탕을 전했다. <전남농협 제공>

전국 159개 시·군 '로컬푸드 지수' 평가 받는다

17개 지표 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
올해 전국 159개 시·군이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확산 노력과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로컬푸드 지수' 평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일 '2021년 로컬푸드 지수 설명회'를 열고 유튜브 생중계했다.
설명회는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대상인 전국 159개 시·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부 측정 계획과 측정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컬푸드 지수는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올해는 기획생 산 지원 현황·지역가공 활성화 정도 등 17개 지표

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이 지수는 2019년 말 지역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의 로컬푸드 활성화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시범측정을 실시해 전북 완주군 등 13개 우수지자체를 시상했다.
평가는 이달 중 지자체 서류접수 기간을 거쳐 8~10월에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먹거리와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토론회도 열린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로컬푸드 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정보(baroinfo.com) 또는 소비자시민모임(consumerskore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잇단 산재사고에 특별 안전관리 추진

상시 불시점검반 운영 추진도
한국농어촌공사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2일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발주한 '보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과정에서 보문호 수로 점검을 하던 60대 민간 잠수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는 안전관리 책임을 현장 관리직원 중심에서 공사 본부장, 지사장 등 관리자 중심으로 범위

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별 안전담당 조직인 안전품질센터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 ▲관리자(본부장·지사장·부장) 안전지킴이 특별 순회교육 ▲지역부서 안전품질센터 상시 점검 강화 ▲안전경영실의 상시·불시점검반을 운영 등도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달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4명에 달하는 사망 사고를 내면서 안전관리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아 전년보다 2등급 이상 하락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식품제조업 수입산 원료 70%

식품제조업 농수축산물 원재료의 70% 가까이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1년차 연구 결과(연구책임자 김상효)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 기준 식품제조업 전체 농수축산물 원재료 사용량은 1787만t으로, 이중 수입산 원재료는 68.7%(1228만t) 비중을 차지했다.
국산 원재료는 31.3%(559만t)에 그쳤다.
김상효 연구위원은 "전문가는 수입산 원재료 사용이 늘면서 우리나라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불균형적인 성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

그린뉴딜사업 지원 등 설명

농협 전남지역본부, 디지털금융 현장교육 실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화순농협 대회의실에서 화순관내 임직원 7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현장교육'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농협상호금융이 추진하는 경쟁력 있는 농협 구형 사업, 지역과 농업인 실익사업, 농촌 그린뉴딜사업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농협상호금융은 농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동조합 금융을 목표로, 농협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거듭나자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고객 편의와 실익 제고로 농업, 농촌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농협이 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강단에는 정재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디지털전략부 부장, 고성신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부장, 김창기 상호금융디지털전략팀 팀장 등이 나서 디지털금융 동향과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상호금융업계 최초로 도입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오픈뱅킹 등 디지털 신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금융업은 기존의 업권별 칸막이를 벗어나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며 "코로나 19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남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